

11월 11일 농업인의 날

◆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,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◆



국민 경제의 근간!

바로 '농업' 입니다.

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,
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
농업(農業)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.

바로 11월 11일 '농업인의 날'입니다.



왜 11월 11일일까요?

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
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'土'자가 겹친
'土月土日'을 상정하였고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
11월 11일이 된다는 데 착안했습니다.

또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
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.



이날은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흥기 선생이 1964년
처음 제안하였으며,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.

그 이후 매년 11월 11일 **농림축산식품부**가 주관하여
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.



왜 **가래떡데이**일까요?

농업인의 날이 지정된 지 10년 뒤에
가래떡데이가 제정되었습니다.
가래떡데이는 **농업인의 노고를 생각하며 쌀 소비를
활성화하기 위해**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날입니다.

농업인의 날이 친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
'가래떡데이'라는 친근한 이름을 붙이고
농업인의 날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.



기억해요! 농업인의 날

◆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,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◆

